東亞日報

新聞定價 壹枚四錢△壹個月八拾錢△郵稅幷九拾五錢△…
廣告料金 五號活字 每行 金壹圓 …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東亞日報社

英露兩國關係의切迫
英國의對露政策一變

英國漁船의拿捕事件을 導火線으로 英國이露國勞農政府에對하야 發한去五月八日의抗議通牒은 一時兩國의國交에危機를告하얏든바외러니 勞農政府의外交特派 크래신氏의渡英으로英國外相과 直接新交涉을開始하야 僅히少康狀態에入하얏도다 元來 英國이發한通牒의形式에對하야 그것이「最後通牒」이아니요「重要通牒」이라고聲明한英國政府의態度는 實로言外의意味가 深長한것을發見하거니와 左右間 當初의態度는英國政府가如何히 强硬하얏든것을可知할바로다 卽十日外지에滿足한回答을要求한것은 英國外務省의態度를 表明하는好個資料라할것이라 그러면所謂重要通牒의內容은如何한가 그要領을列擧하건대 第一에赤化宣傳 特히波斯及阿富汗斯坦方面으로나 또는印度內部에서의宣傳을 禁止할事 第二에英國人及英國船에加한 露國人의暴行이有할時에는 賠償支拂의義務를認定할事 第三에露國의宗敎迫害에對하야英國政府가發한抗議를 露國이侮辱的通牒으로 對한것을取消할事等 以上三個要件이로다卽以上 三個要件에對하야露國勞農政府의 滿足한保障이無한時에는 英國의自衛上武力을使用함도 辭치안켓다는것을極言하얏도다

吾人은以上의各要求에對하야그內容을說하는것보다 오히려英國의對露政策이 變動된것을指摘코저하노라 그리고그變動의狀況이如何히急激한것을 意外로思할바이나 吾人의意外視함은何故뇨 英國의對露親善은吾人의多言을不要하고 過去에一貫한政策이엿도다 或은 께노아 或은 헤-그의各列國會議에英國이率先하야 列國의對露觀念을反省케하고자 努力한것과 또一千九百二十一年의 英露通商協定과如함은 實로英國의一大英斷이라아니할수업스며 또英國의對露親善을標榜한 實例라할것이라 卽이와가치 一千九百十九年의露國勞農政府가 確立된後로以來四五個年에 英國의對露關係는 可及的好意協議의態度로一貫한것이 明瞭하도다 이와가튼英國의態度가 一朝突變하야以上의强硬한 通牒을發케됨은엇지 世人의意外로思할바가아니리오 그리고今番의漁船被害가얼마나한 程度의打擊인지는不知하거니와 萬一將來의保障을爲함이라하면 別問題라 그러나그事件의自體로보면 一個眇微의小事件이어라 이와갓흔輕微의事件을 平和議笑裡에解決치아니하고 反히此를機會로하야事件을擴大視하며 事件化하는英國의態度는 그原因된바가무엇인가 이것은吾人의斷言을待할必要가업시 英國對露政策의一變動을 示하는것이로다

本來英露兩國은所謂犬猿間이라過去一世紀間에亘한 長久한時期에 兩國의抗爭은勿論이라印度波斯의 中東亞細亞方面에在하야 到底히勢不兩立의關係를持한것은 吾人이다지嘵々할必要가無하도다 於是에日英의同盟이起하고 或은露佛의協商이生하얏스며 또一轉하야英露佛三國의協商이 出現하얏든것이로다 卽이와갓흔英露의關係는實로 世界外交場裡의喜悲劇을演出한것이어니와 露國에帝政이倒하고 勞農이代하얏다하야도露國은 依然한北方의熊이라그爪牙가動하는날 波斯가危하고 波斯가危하면印度가不安할것은 英國의明敏한打算에엇지安然視함을得할바이리요 더욱히勞農政府의 赤化宣傳은波斯와印度의全地에 燃及할可能性이多々한지라 於是에通商協定의規約을遵持하야 그宣傳의禁止를嚴求함은 決코平地에波瀾을 起코저하는故意가아니로다 그뿐아니라 英國의現內閣은純全한保守黨系統이라 그政策이前日의 聯立內閣과相異할것은勿論이며 또現內閣의外相인커손卿은前印度總督의經歷者라印度의保全과英國의安危가如何히緊密한것을主張할것은氏平素의持論이로다 이와갓흔諸般의事情이 互相經이되고緯가되야 今番의對露通牒이發하게된까닭이로다 그럼으로吾人은觀하되 今番의事件焦點이決코 一個漁船의被害에在한것이아니라 寧히그眞因은赤化宣傳의恐怖觀念에서 出하얏다함이妥當할것이로다 英國下院의勞動黨首領 막크날드氏가喧々囂々하야 對露通牒의輕妄을痛論한것은 엇지前後脈絡의一致한바가아닌가 또此에對한英外相의答辯에 英政府의目的은勞農黨의把憂하는바와如히 戰爭을目的함이아니오 通商協定의嚴守에在하다함은 實로兩々相對하야 吾人의注目에値할바로다 要컨대 英國의對露政策이一變한今日에 今後의兩國新交涉의如何히될는지 頗히吾人의括目할바라하노라

中國思想界의 新現象(十九)
愚樵(譯)
研究系政治哲學(續)

各派의消長 從來北大에서는唯物史觀을基調로한新人이 非常한優勢이엿스나 最近에는이新人들의發醒에依하야 新舊思想의融合敎育이라는말이 提唱하게되엿슴으로 一時는唯物史觀에서 吾人視하던梁啓超派의敎授等이 漸然히擡頭하게되엿다 此際에哲學研究의見地에서 胡適氏와梁啓超氏의意見이一致되엿슴으로 前에는梁啓超氏를時代에뒤진사람으로하던北大의唯物史觀派는 胡適氏를通하야梁啓超氏의門下에赴하기를그다지 躊躇하지아니하게되엿다 이에梁啓超氏의課外講演은北大의花라고喝采되얏고 梁啓超氏의 中國思想界에對한勢力은 再次復活하야 昨年과갓흔때에는 濟南에開催된中華敎育改進社의總會에서한 講演을爲始하야 上海, 南京, 長沙, 其他長江各地의大學及專門學校에서한講演에서 通常을披攊하고東西文化의比較硏究及新舊思想의融和孕育에關한 純學術的宣傳을하야 各地의新思想家及學生等의喝采를博하엿다 然이나中國思想은(第一期)康有爲氏에서孫文氏와梁啓超氏의게(第二期)陳獨秀氏에서胡適氏에(第三期)胡適氏에서再次梁啓超氏에(第四期)移한것이라고 速斷을要하야서는아니될것이다 以上諸氏는어느사람이든지 中國思想界의有力者이오恒常各派의代表的人物이다 그럼으로 中國의思想界가統一되기前에는 時節을隨하야消長은잇슬지라도 어느사람이던지 相當한勢力을把持하고잇다 다못余는 最近에이르러서 現出된新舊思想의融合이라는 新傾向에隨伴하야 梁啓超氏의學說이重視하게되얏고各派統一의氣運을促進하기에有力한因子가 되고잇는것이 現時中國思想界에서 看過하지못할바이라고하고저한다

東西文化의比較 梁啓超氏는最近北京大學에서한講演中 北京大學敎授胡適氏의『中國哲學史大綱』과梁漱溟氏의『東西文化及其哲學』과는北大가産生한二名著라고推賞하얏다 梁漱溟敎授가한東西文化及哲學研究中에는後進하는梁啓超氏文獻中에서보는것과갓흔獨創的見解를發見하기는어려우나 그學說中에는中國思想界의 新傾向이라고認定할만한點이不尠함으로左에그要點을紹介하리라

先導者(55)
長白山人
중편(中篇)(五의三)

선생의 교육법의 데일조는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목뎍과주의를 명하고 그것을위하야학교의직원과 강사에게 분명히알리고실행식히는것이다 그가 교사를구할때에는 그후보자에게 반다시 학교의규측과 주의를보이고여러날 생각을식히고 토론을하여 그가조곰도이의가 업노라고자긔도 꼭그러케 실행하겟노라고약속하는것을 보고야 그를교사로 채용한다 만일조곰이라도이의가 잇스면 피차에그것이해결되기전에는결코채용하는일이업섯다 그럼으로 선생은학교를시작한뒤에 교사를구하지아니하고 교사를다 구하여노흔뒤에학교를 시작하엿다 이것이학교뿐아니라 그가무슨일이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는새로입학하는학생과그보증인에게도위선규측을주어잘보게한후에그규측에복종하는닭이업노라고꼭규측대로복종하겟노라고하는뒤에야입학을식혓다 그는신입한학생을맛나 몸소 구두시험을하엿는데여러말을다무른뒤에는 반다시

『공부도 조치마는 제 량심의자유를 희생하고까지 할필요는업소 우리학교에서는 공부잘하는사람보다도 량심의 자유를잃치아니하는사람을 원하오 그럼으로 만일 우리 학교 규측중에어그러지는것이 잇거든 입학을아니하는것이조소 그러치마는 한번당신이 이규측을 복종하겟다고 허락하고 입학한뒤에는 조곰도 용서함이업슬것이오 또당신도 한번복종하기를 량심으로허락하엿슨즉 다시는 아모불평을하실수업슬것이오』

이러케말하고는 선생은 학생에게 잠간생각할시간을 준뒤에그 대답을 들엇다

그럼으로 교사나 학생이나한번학교에 들어온뒤에는 다시아모 이론이 업섯다 비록 규측에의하야엄한벌을밧더라도 자긔가 미리허락한것임으로 감히원망할생각을아니하엿다

무슨 파실이 잇는 학생에게벌을 줄때에는 선생은 반다시이러케 말하엿다——

『당신을 벌하는것이 내가 아니오 당신이오 이 규측은 당신이 지키기로 허락한것이니 곳당신의 뜻이오 나는 당신의 위임을 바다 학교의 일홈으로 이벌을 주는것이오 당신을 벌할자는 오직 당신뿐이오』

이런 말을 할때에 선생의 목소리는 떨엇다

한번은 엇던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하지아니하면 아니될 경우를 당하야 퇴학 당할 학생을압헤 세우고

『당신은 허물된 일을 하엿구려!』하엿다

그런즉 그 학생은

『네!』하고 고개를 수겻다

『당신이 입학할때에 늣하고 선생은 심히 애석하는듯한 어조로『이러한 허물을 치면 퇴학처분을 밧겟노라고 약속하엿지오?』하엿다 그말이 엇더케 엄숙하고도 간절한지 학생은 흑々늣기며 눈물을흘렷다 선생의눈에도 눈물이 고이며

『나는이것이 당신의한번잘못인줄을아오 그리고당신이 조흔사람인것도아오 그러나 우리가량심의 허락으로 세운법은지켜야하고또 당신이 량심의자유로한약속은 지켜야하겟슴으로 나는학교의 일홈으로 당신에게퇴학을 명하오』하엿다

그학생은 그날밤에 선생의숙소를차자갓다 그러나용서하여달라는청을하려간것은아니다 그는

『선생님 일년후에 다시입학하겟슴니다』하고집으로 갓다가과연 말대로 일년후에 다시 입학하엿다 그아말로금후일에 선생의중요한 동지중에하나인 김윤수다

社告

今般本分局에서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左와如히分賣所를設置하얏사오니如此照諒하사옵소서

一、分賣所의名稱
昌平分賣所

一、分賣所의位置
潭陽郡昌平面昌平里

一、分賣所의職氏名
主任 文仲錫

東亞日報 潭陽分局白

妙 補精 鐵腎丸 眞正한奇藥
世上不老草라도아모効力이업스면 壹厘의價値가업고 萬金이라도 尙廉하리라

本藥으로 特効보는症勢

此에身上益多함이外도利益이大함

特別 半劑三十日分五圓五拾錢 一劑 金拾圓也

京城府寬勳洞拾番地 總發賣元 慶和堂藥房

珍書 他店無한良品讓上
法文에珍書 삭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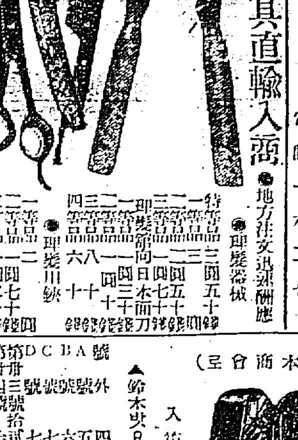
◉當十八日부터 蓴英全部交換
▲米國유니버-살會社쥬ㅂ超特作品 人情劇 狼의心 全七卷
▲米國액데이아會社第二次大作 禁斷의女 全六卷
▲米國유니버-살社特作品 喜劇 拳鬪成金 全二卷
▲米國유니버-살社特作品 實寫 國際時報 全一卷
冒險活劇 大魔王 全十八篇三十六卷
京城授恩洞 團成社 電話(本局)九五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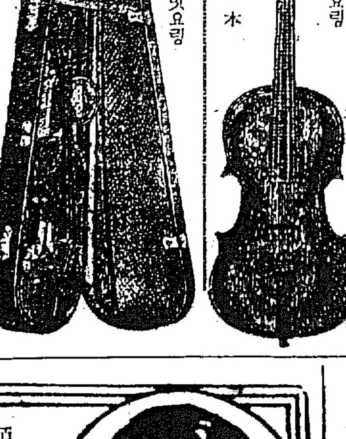
◉當十六日封切特別大映畫提供
◇米國메트로社映畫 喜劇 魚의罐詰 全一卷
◇喜劇大家짜푸린의曲藝 曲藝色々 全一卷
西班牙文豪이바네스氏의讚歎한 社會劇 默示錄의四騎士 全十一卷
世界混亂의悽慘한悲劇으로人類의平和의中軸을象徵한世界驚歎의大映畫를보라!
探偵冒險大活劇 第七回十四十五篇 連續活劇 판토마 四卷
작크氏무쇼의生命이엇지나될가?
今回부터料金도特別割引함
京城仁寺洞 特約 朝鮮劇場 電話本局三六二〇番

實地應用 演說方法 定價金五十錢 送料九錢
靑年의獨立生活 定價金五拾錢 送料九錢
學生自習 日鮮書翰文 全 定價金五拾錢 送料九錢
現行 刑法註釋 定價金七拾錢 送料拾壹錢
發賣所 京城府堅志洞五十一番地 振替京城九五四五番 廣韓書林

新定 普通 朝語問答 自習書 朝鮮敎育研究會編纂 定價金卷一卷二各十錢
本書編纂의經路聲明
新定 普通 國語自習顧問 定價金 各十錢
改修 高等 國語術語釋義 卷三出現!!! 定價金卷一卷三各貳拾五錢
本書의 目的은 各高等普通學校生徒諸君의自習參考에供코저함
內容 目今使用되는敎科書를參考하야充分適切한和鮮譯을並解하고且未詳한部分은歐文을添하야徹底하게解釋함
形式은 理解에最히適切하며記憶에가장便케하고體裁의美를極致함
分量은 簡易하야要點을不失하고緻密하야荒粗에不流함
●朝鮮語詳解難句集四卷十錢 同卷五卷六 各六錢
●朝鮮來引 卷四至卷六 各六錢
京城府堅志洞八十番地 振替口座京城九六七九番 廣文書市

百濟病院
院長 崔鏞海
副院長 江里口春志
電話 一六二七


◉理髮器具直輸入商
各種鋼物 理髮器具商 和洋金物 大工道具
●地方注文迅速酬應
京城府鐘路通一丁目 司元村筆吉本店 地方販賣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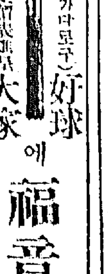


鈴木바요링
東西洋商 樂器專門 京城鐘路五丁目一八 CMS商會 씨엠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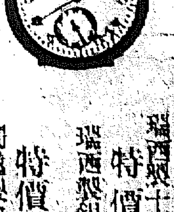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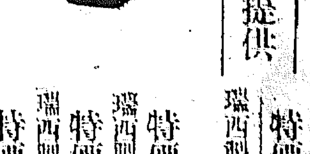
本標가모니카하모니카

단소趣味를得하라는人

山口運動具製造所
京城本町二丁目 山口運動具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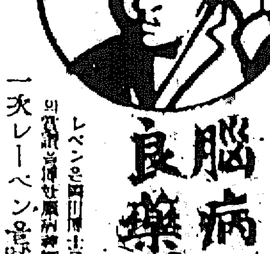

好球에 福音 大家

毒掃丸
肉体의淨化 精神의美化

懷中及腕卷時計新着
保險證添付提供


最新流行品
瑞西製十八金片치마票 特價貳拾五圓
瑞西製銀片치마票 十五石入 特價拾一圓
獨逸製白銅片치마票 特價四圓五拾錢
瑞西製十八金腕卷치마票小形 特價貳拾五圓
瑞西製銀腕卷小形付 特價八圓五拾錢
瑞西製白銅腕卷小形付 特價六圓五拾錢
京城府鍾路二丁目十一番地 信鍾堂時計舖

地方特約店事務員採用
京城 蓬萊町一丁目二〇 貿易商 余吉永商店

今般弊店에서內外物産을原産地로直輸入하와廉價로酬應하오며親切叮嚀薄利多賣를目的하오니一次試用하야주시옵을務望하옵니이다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〇番地
穀物貿易、酒類、砂糖、綿布、內外雜貨、各種肥料、朝鮮海産物、金融貸附、各種食料、委托販賣運輸業
余吉永商店
電話本局九二二番 振替京城五一〇二番


腦病良藥 레벤
顯著한을激賞한다何故인가
一次레ーベン을試用한人은必히其效力을
無代進呈
本舖 中南定太郎

佛官憲又復橫暴

「루얼」로부터 七百人追放

佛國官憲은 占領地帶에서 更히 七百名의 鐵道及稅關官吏를 追放하얏고 尙且 工業界의 重要人物 五名의 逮捕를 命하얏더라 (伯林十九日發)

英佛關係甚危殆

英國人은「루얼」占領不承認

倫敦駐箚佛國大使「오-쎌」伯은 英國의 輿論이 佛國에 對하야 今日과 如히 危殆케 된 예는 無하다고 斷言하얏스며 又「볼드-」敎授도 英國의 觀察을 是認하고 巴里에서 英國人의 過半數가「루얼」占領을 承認하는 줄로 認定하는 것은 謬錯이라고 警告하얏더라 (倫敦十九日發)

「英露緩和에 努力」

英國外相對露代表說明

露國海外貿易長官「크라신」氏는 英國外相과 會見한 結果 英國의 最後通牒의 期限을 延長하얏는데 英露의 葛藤을 解決코저 한다 하고 外相은 其希望을 說明하얏더라 (倫敦十九日發)

英首相辭表提出

英國首相「보나-로-」氏는 病勢危篤으로 辭表를 提出하기로 決하얏더라 (倫敦十九日發)

病勢甚危重 ‖ 諸政治家及諸新聞은 首相「보나-로-」氏가 辭表를 提出할 事가 明白한 것을 揭載하얏는데 氏의 容態는 漸次 惡化하는 中임으로 速히 倫敦에 歸할터이라더라 (倫敦十九日發)

聯合調査設會乎

獨逸의 經濟的能力을 調査코저

「타임스」所報에 依하면 聯合國賠償委員은 獨逸의 經濟的能力을 調査키 爲하야 聯合專門家委員을 設置할 意嚮이라더라 (倫敦十九日發)

「아」鐵管理引受

在倫敦一英國財團

倫敦에 在한 五大銀行으로부터 組織된 一英國財團은 瑞西銀行으로부터 小亞細亞의「아나트리아」鐵道의 管理權을 引受하얏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英國財界及產業界에서는 多大한 興味로 此를 歡迎하는 바「아나트리아」鐵道는 前獨逸의 所有인「바그닷드」鐵道와는 全然 別個의 것인데「하이다-바샤」로부터「소사」에 至하는 線과 及「앙고라」에 至하는 支線인 바 伊國財閥은 英國의 勸誘에 應하야 右財團에 參加할 事를 承諾하얏는데 佛國도 大體로 參加케 되리라더라 (倫敦十八日發)

待遇問題가 第一

日米間에 橫在한

埴原大使는 日本協會午餐會에서 演說하야 日米兩國間에는 重大한 利害衝突을 한 事가 無하다고 斷言한 後 更히 附言하야 曰「다만 兩國間에 橫在한 一問題가 有하니 此는 米國에 在한 日本人의 待遇에 關한 問題인바 此問題만 解決되면 兩國의 幸福의 關係는 決코 破裂되지 아니하리라」云々 (紐育十八日發)

人質救出交涉

棗莊驛頭에 重要人物蝟集 光景

棗莊驛에는 外交官 中國官吏 新聞記者等이 蝟集하야 非常히 混雜한 바 外交團과 中國側代表等은 各々 日數回式 特使를 山砦로 派遣하야 其回答을 得하면 每番 列車內에서 會議를 開하며 又救護班은 山砦로부터 脫來한 者나 或은 釋放된 者를 列車內에서 休息케 한 後 陳述을 聽取하며 또는 山砦內에 幽閉中인 外人의 消息을 得하면 直時 打電하며 又機敏한 米國寫眞會社의 撮影技師는 現場에 來하야 此等 現場을 撮影하는데 土匪는 一千의 同類를 正規軍으로 編入하라는 바 救兵을 勸告하는 中인 外交團은 此를 承認키 難한 模樣이라 然이나 結局은 外人의 生命財產에도 關한 問題임으로 此를 承認케 될 模樣인데 捕擄外人中 兩三名은 病으로 因하야 危篤하다더라 (北京十八日發)

土匪側又復威脅 ‖ 土匪는 아직도 威脅的態度로써 各種要求를 하는 바 中國討伐軍의 撤退가 土匪의 要求와 如히 實行되지 못함을 甚히 憤慨하야 現場에 出張한 中國官憲及領事團과의 交涉을 中止하고 遂히 北京政府와 直接交涉을 한다 하는데「만부」氏(佛國人)는 十八日 土匪로부터 北京政府에 對한 要求傳達의 命을 受하야 土匪의 山寨로부터 釋放되얏는데 其要求는「速히 土匪의 要求를 容認치 아니하면 最後의 手段에 出할터인 바 討伐軍이 二十二日午後六時前에 包圍를 解치 아니하면 直時 英米人의 人質을 銃殺할터이라」한 것이더라 (上海十九日發)

捕虜解放과 土匪의 要求 ‖ 交通總長吳毓麟氏는 國城으로부터 政府에 電報를 發하야 十七日 政府代表로 土匪의 山寨에 派하야 彼等을 人質로 하고 捕虜의 解放을 交涉하얏는데 土匪側은 承認치 아니하고 彼等은 爲先 土匪의 首領을 招撫하야 總司令에 任命하면 其時 捕虜의 三分一을 解放하고 次에 包圍軍을 撤退한 時에 更히 三分一을 解放하고 最後에 土匪가 全部 官軍에 編入된 時에 最後의 三分一을 解放하겟다는 提議가 有하다 報告하얏슴으로 政府는 此全文을 公使團에 送達하얏더라 (北京十九日發)

佛國人은 釋放北行 ‖ 佛國公使館에서 發表한 바에 依하면 土匪에게 被囚하얏든 佛國人은 釋放되야 北京으로 向하야 北行하얏다더라 (北京十九日發)

京漢線列車에 武裝 ‖ 北京政府는 臨城津浦線土匪의 人質拉去事件에 鑑하야 京漢線北京發列車에 武裝兵四十名을 搭乘케 하고 更히 機關銃一臺를 裝置하기로 하얏다더라 (漢口十八日發)

外交團會議決議 ‖ 十九日正午 外交團會議를 開한 結果 一. 捕虜釋放遲延에 對하야 臨城最高幹部의 責任을 問할 事 二. 土匪包圍軍의 攻擊을 停止케 할 事의 二項을 決議하얏더라 (北京十九日發)

列國財政管理考慮說 ‖ 信憑할만한 外國側所報에 依하면 列國은 土匪問題에 鑑하야 此際에 急히 財政管理에 對한 政策을 考慮中이라더라 (北京十九日發)

又列車顚覆計策

計劃發覺에 憤慨하야 驛長을 拉致

棗莊着電에 依하면 山東의 土匪는 十七日午後十一時頃 泰安府에 隣接한 南驛附近의 線路를 破壞하고 急行列車의 來到함을 企待하든 바 驛員이 此를 察知하고 泰安驛으로 通報한 故로 即時 停車하야 僅히 大事를 免하얏는데 一方 土匪는 列車가 到來치 아니함을 憤慨하야 驛長을 拉致하얏다더라 (天津十八日發)

「山東豪傑은 蹶起하라」

土匪側의 軍閥討伐飛檄

土匪는 山東建國自治軍總司令의 名으로써 布告한 바가 有하얏는데 右布告에 依하면 軍閥이 借款을 濫起하며 重稅를 課하야 苛斂誅求가 無所不至함을 攻擊하야 此를 討伐하야 財產의 均分을 實行코자 함으로 山東에 在한 豪傑의 士가 多하니 志士는 蹶起하야 共히 起事함을 望하노라 檄하얏더라 (棗莊十七日發)

官兵掠奪

縣知事를 人質로

湖北省遂安縣에 駐屯한 張榮花의 部下가 掠奪을 開始하야 縣知事를 人質로 한 後 玄米五十石과 銀二千元을 要求한 故로 同地商務總會는 此要求를 承認하고 知事를 救出하얏더라 (漢口十八日發)

赤旗揭揚問題

警視廳態度如何

警視廳事務를 開始할 臨時事務所의 三十九號室에는 旣爲 萬般의 準備가 整頓되고 注文中인 器具用印刷도 作成되야 直時라도 事務를 開케 되얏스나 問題는 赤色露西亞의 赤旗下에 事務를 開始하는 以上에는 當然히 揭揚치 아니하면 아니될 赤旗는「호텔」何處에 樹立할가 함이 問題인 바 赤旗라 하면 民衆의 示威運動等에 一本을 使用하더라도 卽時 押收하는 警視廳에서 萬一 精養軒에 赤旗가 飛翻케 되면 果然 默過할는지 此는 不少한 重大懸案이더라 (東京電)

四億借款은 頓挫

劉財政總長은 辭職하고 張財政次長도 辭表를 提出한 後 天津으로 退去한 故로 劉張兩氏가 四國銀行團間에 熱心으로 周旋하든 四億元借款交涉은 頓挫된 形便이며 新財政總長張英華氏도 아직 四國銀行團에 大借款交涉의 繼續을 하지 아니할 事實이 無한데 最近 突然히 張英華氏는 四國團以外에 英米資本團으로부터 成立되는 크리슴 財團間에 二千萬弗借款의 交涉을 周旋한다는 消息이 傳하는 바 精探한 바에 依하면 此는 事實이며 約二週間前부터 其交涉이 開始되야 交涉은 順調로 進行되는 模樣이라더라 (北京十九日發)

日露通商促進

演說會

對露貿易이 杜絶된 後 更히 上陸禁止問題等으로 大打擊을 蒙하는 敦賀港에서는 過般來로 日露通商促進運動을 惹起하야 十七日夜 敦賀座에서 此에 對한 町民大會와 演說會를 開하얏는바 會衆이 一千數百名에 達하얏는 中 各職業階級의 辯士 二十六名은 前後登壇하야 生存權의 要求, 軟弱外交의 刷新, 國民外交의 必要等을 力說하야 氣勢를 揚한 後 十一時에 散會하얏는데 目下 交涉中인「욧페」氏의 提議가 成立될 時에는 市旗를 揭하야 大示威運動을 擧行할터이라더라 (敦賀電)

出漁速決努力

永井通商局長說明

十八日 臨時閣議에서 漁業問題에 對한 日本政府의 態度를 協議한 結果 本年度 借區料 半額 六十五萬圓 營業稅 十萬圓 及 大正九年度後半期 同十, 十一兩年度 借區料 中 百萬圓 計 百七十五萬圓을 露西亞側에서 支拂한 後 漁業契約의 手續을 完成할 事를 漁業組合에 許可하기로 決定한 바 此는 漁期를 失하면 本年度의 漁業이 不可能케 됨으로 露西亞의 課稅問題에 對한 解決은 後로 하고 右와 如히 決定한 것인데 此外에 種類及稅率高等에 對하야 露西亞와 共히 專心妥協々調할 方針으로 進行할터이며 又 人頭稅에 就하야는 日本에서 明答을 與치 안이하얏슴은 遺憾이나 日本에서 誠意로써 手續을 完了하면 四月一日 契約 當時나 又는 從前에 無하든 課稅 等을 賦課함과 如한 事는 無할터인데 十八日에 着東한 査證官이 旅券의 査證으로 前記 以上에 支拂한 後 開始하다 하면 爲替送遣의 手續을 取케 할 豫定이라더라 (東京電)

東洋大學의 紛擾

漸次白熱化

東洋大學의 紛擾는 更히 猛烈케 되야 學長擁護派와 彈劾派가 二派에 分立되야 紛爭이 正히 白熱化한 故로 學校當局은 萬一을 念慮하야 富坂署의 出動을 請하얏고 警官隊는 自動車를 準備하고 警戒하는 中이더라 (東京電)

休學發表

‖ 紛擾中인 東洋大學은 二十一日부터 以後 十日間 休學을 行하기로 發表하얏더라 (東京電)

正貨現在激甚

五月十五日現在의 正貨總額은 十七億九千九百萬圓인 바 此를 四月三十日 在額에 比較하면 三百萬圓의 減少이더라 (東京電)

平壤時話

平壤支局 一記者

日本人들이 平壤을 觀察함에는 妓生과 祖合을 ᄀ를 보인다 當地에 來하야 本社新聞記者를 面會하게 되면 日前日本全國新聞記者團이 平壤에 第一이오 平壤의 自慢인 妓生은 世界에 所聞 높은 것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官憲도 禁止할 만한 內容이 있을 듯하나 ... 平壤府의 市街에서 人家가 第一 位置인지 모르겟지만은 ...

三港中旬貿易

橫濱入超 ‖ 五月中旬에 於한 橫濱港對外貿易額集計는

輸出	一四、四四六、一二二圓
輸入	一九、四八三、三九九圓

으로 結局 五百三萬七千二百七十七圓의 入超이더라 (東京電)

神戶도入超 ‖ 五月中旬에 在한 神戶港의 外國貿易額은 左와 如하더라 (神戶電)

輸出	六、二四九、〇〇〇圓
輸入	一八、二二三、〇〇〇圓
結局入超	一一、九六四、〇〇〇圓

一月以降의 累計

輸出	一二一、六四四、〇〇〇圓
輸入	三七四、四八三、〇〇〇圓
結局入超	二五二、八三九、〇〇〇圓

大阪은出超 ‖ 大阪港의 五月中旬貿易額은 左와 如하더라 (大阪電)

輸出	八、四二一九、五九九圓
輸入	四、九二〇、九五〇圓
結局出超	三、五〇五、六四九圓

一月以降의 累計

輸出	一二二、〇六七、二二三圓
輸入	六五、五二五、四三九圓
結局出超	五六、五四一、七九三圓

經濟調査設會

朝鮮、臺灣、關東

日本政府는 各地經濟政策의 根本方針을 確立키 爲하야 內閣에 直屬될 各地經濟調査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한 後 右官制를 起草中인 바 六月中에는 成案을 得하야 法制局으로 廻付審査한 後 閣議에 上程實施케 될터인데 調査委員은 各地의 當局者中으로부터 選任한다더라 (東京電)

政務總監訓示 (四)

交通機關의 整備는 一日이라도 忽諸히 하지 못할 事項의 一이라 國費에 在하야는 本年度는 起債額을 制限한 結果 豫定한 事業額에 對하야 多少의 保留를 行치 아니치 못함에 至한 것은 殊히 遺憾이나 政府는 財界의 恢復을 待하야 保留期間을 短縮할 터인 바 此는 ...

增殖計畫

이 外에 ... 協力에 俟치 아니치 못할 事項이오 ...

小作人의 地位

...

裁判所의 權限에 關하야

...

米價前途樂觀

...

滿洲金融緩和

融通策稍進捗

滿洲金融의 緩和資金融通에 關한 大藏省의 態度는 旣報와 如히 銀行外債의 大部分은 社債償還에 充當케 되얏스며 其餘 一千餘萬圓은 新規貸出로 高利로 因하야 滿洲金融의 緩和資金은 不可能케 된 結果 預金部資金의 融通을 請하게 되야 不遠間 大藏省議에서 預金部資金의 貸出條件과 金額을 決定할터이나 融通額은 決定치 안이하얏스나 ...

私鐵合同과 資金

融通方法如何

朝鮮私設鐵道合同後의 資金調達에 關하야 朝鮮銀行의 美濃部總裁及弓削鐵道部長은 各々 協議中이더니 四月一日에 合同한 後 直時 社債를 發行할 것은 旣定한 事實인데 其額은 一千萬圓 가량의 ...

副總裁退任

鮮銀 後任은 鈴木理事乎

鮮銀副總裁 加藤三郞氏는 來六月이 任期滿了인바 其重任如何에 ...

辯護士協會

全鮮

全朝鮮辯護士를 網羅한 朝鮮辯護士協會에서는 第三回定期總會를 去十九日午後三時에 市內敎育會館에서 開催하고 ...

私鐵合同會議

...

朝鮮生命總會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는 來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 同社內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

辭令

總督府參事官 ...

消息

▲永井殷氏(第一銀行支店長) ...

橫說竪說

▲今番의 道知事會議에서 ...

商況

仁川日用物價

仁川期米

五月十九日後場

少低

米豆餘墨

...

仁川府海岸町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盈仲買店 電話長 七三二番

仁川府港町五丁目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高橋謙三 電話長 九一五、一六八番

普天敎平南眞正院 白

平壤府寺岩里六七

謹告

又春旅館

第一期決算報告

鷄林興產株式會社

沃野林氏譜所

根治力 (定價)

治痳珠

男女淋疾의 靈藥

製造本舖 救世藥館

ClibPDF - www.fastio.com

水原事件에서 金相玉事件까지 許多慘劇의 渦中에

순직햇다는경관이 사십륙명 그중에는조선사람도열아홉

느진봄비가 개일듯말듯한 작일 왜성대(倭城臺)에서는 조선경찰협회(朝鮮警察協會)의주최로 소위순직경관(殉職警官)의 초혼제(招魂祭)를거행하얏다 그리하야 초혼의제물(祭物)을밧는그들중에는 뎐염병(傳染病)의 예방에종사하다가 병이들어죽은자도 잇스며 취이들의 리검(鳥劍)련습을하다가 마저죽은자도잇스며 불에싸진사람을 건지려다가 죽은자도잇고 강도(强盜)나절도(竊盜)범인을잡으려다가 죽은자도 잇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수한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들을죽이다가 다시독립단들의 총칼에마저 죽은자도잇다 그리하야 독립단의손에 죽어버린자는 일백한사람중에서 마흔여섯사람이나되며 다시그중에서 열아홉사람은 조선의 아비를모시고 조선의 아들을 거나린 조선사람이다 그리하야 조선의독립을 의하여 힘쓰는 독립단의 또는독립에관한사건으로 싸우다가 죽은자는 지금으로부터 사년전 삼월일일(三月一日)탑골공원(塔洞公園)에서독립만세(獨立萬歲)소리가 일어나자 스물일곱재날 세계의 피가쓸케한 수원의참사(水原慘事)당시에 약한주먹에서 날라는 백차들의 돌날매에 마저 죽은일본인 순사부장(巡査部長)을비롯하야 금년일월 십칠일새벽시내삼판통(三坂通)에서김상옥(金相玉)의륙혈포에마저죽은 일본인순사부장 뎐촌(巡査部長田村)으로웃솔맛치엇다 조선독립단들의 근거가 국외에잇슴애 비참한싸움은 대개 국경방면에서이러나며 평안남북도(平安南北道)와 함경남북도(咸鏡南北道)의 국경방면에서 일어나게되얏다 그리하야 경관의죽엄이가장만흔곳은의주(義州)의일곱명과강산(江山)의네명을비롯하야대동(大同)순천(順川)의세명식이며 그밧게 벽동(碧潼) 덕천(德川) 초산(楚山) 안주(安州) 위원(渭原)성천(成川)등디의두명과 삼수(三水) 영원(寧遠)자성(慈城) 운산(雲山)등 가티오륙군데의 산속이나 숲속에서 일이명식의 죽엄이잇섯다 이와가치 일백한명의 죽은자를위하야 그남은혼(魂)을불러주는자의정성에는조선사람이나 일본사람의 구별이 업서 ……

전염병을

예방하다가죽엇든지 독립단을 죽이다가죽엇든지의 구별이업시 오직사람으로의 최후의목숨을버린 그들을위하야 설어하는 사람도 ……

良民에게拔劍放銃하는것이 警官의公務執行이냐

은률군산림사건공판에 피고정순근의부르지즘

황해도 은률군남부면에잇는 산림일천사백여뎡보를 경찰에 거주하는일본인반뎐(半田)에게대부한사건으로 지나간 십월십일일에 산림구분조사를하다가 반뎐의대리인과 소유자 칠십여명이 질문하난대 동면주재소 순사가출장하야 소유자인 군중에대하야발검방총(拔劍放銃)한사실은당시에 자세히보도하얏거니와 그후 이사건에대하야 해주디방법원 송화지텽 등뎐검사사무취급(海州地方法院松禾支廳檢事事務取扱)의손으로 심리중이더니 그총과칼로 인민을상해한순사는 모다 빼고소가되고도로혀 피해자인 소유자중에서 정순근(鄭淳根)(四二) 정태식(鄭泰植)(四五)의두명만공무집행방해와상해죄(公務執行妨害及傷害罪)로기소되야 지난십일일오전열시부터 송화 지텽형사법뎡에서 공판을개시하고 등뎐검사의입회로산중(山中)판사가 사실을 조사하는대 ……

獨立團員 無業青年拉去

달여다가 재무를부식인다고 남만주무순현 김쳔신지라뎡(南滿洲撫順千金寨支那町)에서 려관영업하는 김규뎐(金奎鉉)의당남김재호(金在浩)(二三)는 거십사일에 무슨일이잇서포가둔(鮑家屯)자기삼촌의집에 갓던바 그잇해 ……

价川에紅疫猖獗

小兒死亡이二百餘名 조금도쳡식되는징후가업다

평남개쳔디방(平南价川地方)에 홍역이 발생하엿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이래로 점々창궐하야 조금도 조식될 희망이업는 바 이달십오일까지에개쳔면(价川面)만에서만 사망된아이수효가 일백칠십칠명에 이르럿스며 기타 다른면내에서 사망한수효까지 통계하면 임의이백명을 초과하엿다더라(개천)

安州에도流行

역시사망이만타

근일안주디방(安州地方)에서도 홍역이발생되야 점々 창궐하는 형세이며 임의사망한아이도 불소하다더라(개천)

三淸洞에殺人騷動

실상은친구끼리희롱하다 싸다몰으게허무히죽은것

작이십일 오후령시 삼십분경에 시내삼청동(三淸洞)에서 친구끼리 작란을하다가 사람을죽인 일이잇섯다 이제 그내용을들은즉 이십일오후령시십분경에 삼청동 사번디에사는 최중태(崔重來)와 당남 최수만(崔壽萬)(三)과 또는 그곳삼이번디에사는 박상준(朴相俊)의 당남박도환(朴道煥)(三)과 기타동리아해삼사명은 그곳 일백삼십삼번디에잇는 후작리재각(李載覺) ……

原因은腦震盪

외양으로는별로 상처가 업섯스나 그러나외부(外部)에는 별로이상이업고다만내부(內部)……

學生團優勝은徽文에

第四回全朝鮮野球大會第四日

셕황리에원만히마친야구대회

兩團優勝旗

重大犯人逮捕?

군자금을다수히모집하고 과격파와도련락된듯하다

◇사진설명◇

(上)학생단의우승긔 (中)학생단의우승기를 밧는광경 (下)청년단의우승뎀을밧는

突然人山人海

鳳山郡에強盜

金時計를詐取

東洋美術展覽

全州一普校生 盟休의退學

六十錢에殺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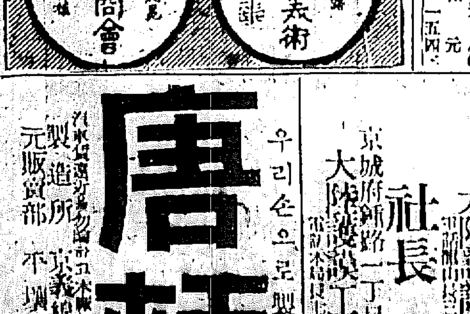
△勝戰經過 青年團決勝戰 (第三日)

中央對大邱 十七對十一로中央勝

去二日滿都人士의興趣를沸騰케하든全朝鮮野球大會의靑年團의決勝戰은第三日인十九日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始作되얏는대 ……

五山對徽文

三對十四로徽文勝



天恩堂大藥房

淋疾 藍効丸

開業 五月十七日부터 營業種目

大東商會

服藥好時機 ◇大補湯 ◇八味湯 ◇六味湯 ◇四物湯 ◇雙和湯 ◇神仙氣湯 南京一藥房

回神丸 간질병에 신효한약 祛痰止咳散 慈善堂藥房

唐麵 우리손으로製造하는

我朝鮮고무靴의元祖 大陸고무 社長 李夏榮

朝鮮防水布紙製造所

布製雨衫

學生用雨衫

ClibPDF - www.fastio.com

爆發彈

一幕脚本

—(五)—

(민부인) 그러면 누구던지 모다 멸망한다는 말슴이지요 어른아이 남녀로소를 물론하고요

(박사) 그럿치 누구던지 물샐틈업시 망하네 필경은 전쟁에 나아간 군대에 잇는 사람이나 자긔나라안에 잇는 사람이나 덕국백성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열흔아름도 이러케 생각하면 나는 이러케 생각하네 군긔계조창에서 탄알만드는 녀자이나 그 탄알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서 싸호는 병정이나 다를 것이 업다고 생각하네 여보게 내가 지금 이자리에 안젓서도 나의 발명품을 생각하면 마음이 쾌하여 못견대겟네 그러나 노르번쩍하면 가지면 사람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놉히 큰도회를 두려 쌔워 내가 디 첫째 면에만 이번식을 발견하였더면 지금 독일은 이라고는 씨도 남지 아니하고 멸망한 종자가 되고마랏슬것이엿세

(민부인) 오라버님에서 발명하신 폭발탄과가치 무서웁고 혹독한 물건을 다른나라사람도 발명치 못한다는 법이 업스니 그러면 그런폭발탄을 우리에게 던지지 아니할가요

(박사) 그와가튼 념려가 업지는 아니하지 그때는 폭발탄을 두구 가본카 떠러치나 경진이 생길 터이지

(민부인) 「안컷든」의자로 도로 가저안스며 오라버님 가튼사람이 발명한 탄알이 우리아이를 재도남기지안코 죽여업시 안것인가봅니다

(박사) 「부인의 압흐로 가서 부인」의 등을 툭툭치며 죽은아이의 이야기는 다시 쓰내지 마르게 자미를 압흐로가세 세상일에 자미를 부처보게

(민부인) 자미를 부처보아요 엇던때는 내가 이런생각도 납니다 오라버님 아모리 재조가 만흐시더라도 가실는 세상에 데일가게 분한사람이라 합니다

(박사) 그리지 말게 웨 그다지 섭섭해하나

(민부인) 나는 재조가 쉬운 어치 도업서요 오라버님과가치 재조가 만흐신이의 누의가 된 것은 이상스럽지요 나는 보통녀자로 나의생명에는 아모욕망도 업서요 나의 남편을 공경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일밧게는 아는 것이 업세요 그러치만 오라버님게서 내아들이 가루가 되여 죽엇다는 소리를 듯고도 태연하게 넘기시니 오라버님가치 악한사람이 업는것갓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분명하것다는 밧게 여러만명의 생명을 몃분동안에 가루로 만들 살을 하고 어린것들이 그 독가스를 마시고 몸이 석어 문드러지게 만드신 심드러지요 그러케 악독한 발명품을 가지고 나다려 버리라 하시오 오라버님은 실성을 하섯서요 악독하게도 실성을 하섯서요

(박사) 그런말을 자네가 하나!

(민부인) 조금 기다리세요 나와가튼 범상한녀자의 의견을 좀 생각하시라는 말이야요 그러나 니 하실수가업지요 웨 그러냐 하면 이세상에는 나와가치 범상한 보통사람의 수효가 더만흡니까 모르는체할수가 업지요 내가 내아들을 생각하는 것가치 나의 아들을 오라버님이 생각하여 보세요

(박사) 그러케 화를 내이면 자네 신상에만 해로우니

(민부인) 나도 그런줄을 모르는것도 아니야요 그러나 내 맘만은 드르서요 내가 엇던때에는 하일도 만히 생각합니다 서로 퇴고 못생긴 일을 만히 할 때이지요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 나의 남편과 나를 생각하여 보면 나는 아이의 어머니요 내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로 ... 아이의 생각을 하면 아이가 나서 자라나는 동안을 생각하면 나는 ...

(박사) 그러치 그애가 참 잘생겻섯지 우리 매에가 오작 곱지 아니하요 우리 매에가 오작 잘생겻서요

(민부인)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야 엇지하면 우리보다 나흔 사람이 되겟나 ... 날마다 미덧더니 ...

(박사) 그러치만 그러나 고나도 조와하엿지 그애가 매우 얌전하엿서 ...

泗川小作問題 圓滿解決

朝鮮에서 土地商으로 致富한 釜山에 在한 日本人 迫間房太郞氏의 所有인 泗川郡西浦面舞鼓里에 在한 土地에 對하야 昨年來로 小作問題가 發生되야 晋州勞働共濟會西浦支會間에 大衝突이 起하야 一時는 形勢가 頗히 危險하얏스나 當局과 其他各方面의 仲裁로 僅히 秋收는 圓滿히 畢하얏스나 地主迫間氏는 今春에 至하야 그 土地의 小作人으로 勞働共濟會員인 小作人八百餘斗落의 大移動을 行하엿다 此에 對한 一般의 輿論은 沸騰하고 小作人들은 勿論이오 同會에서는 어듸까지든지 此를 對抗코저 하얏스나 그 農監朴元瑞氏는 此를 憂慮하야 地主迫間氏와 屢屢交涉하야 解決코저 하엿스나 圓滿한 解決을 見치 못하고 形勢는 去益危險에 陷하야 晋州勞働共濟會幹部鄭瓚錫 金義坤兩氏는 釜山에 出張하야 地主迫間氏와 會見하고 前後事情을 交涉한 結果 迫間氏는 大히 覺悟하고 移動한 小作權八百斗落을 即時 各小作人에게 還付하기로 한 ...

洋襪職工總會

窮境에 對한 討議

平壤에서 生産되는 朝鮮人의 工産品中에 第一位를 占하는 것은 洋襪이니 其工場數는 大小合하야 二十餘處에 達하며 此에 從事하는 職工數는 一千六七百名에 達하는바 此等職工과 工場主의 關係及作業은 制限이 없으므로 從來 職工들이 月賦로 買入하야 此工場主로부터 洋襪機械를 月賦로 買入하야 이 機械에 對한 諸條件에 對하야 一打二十錢 乃至四十錢의 工賃을 職工이 受하는 바 ... 此에 對하야 去十三日에 當地天道敎會堂에서 平壤洋襪職工組合總會를 開하고 此에 對한 善後策을 討議하얏다는데 ... (平壤)

麗水市街設備

朝鮮人의 大不平

朝鮮內에서 日本人이 多數히 居住하는 都市는 何處를 勿論하고 其市街의 衛生其他 모든 設備가 朝鮮人의 居住地와 差가 有하야 ... (麗水)

小作權移動은

舍音의 恣行

全南光陽郡邑內 趙鏡文 金聖初兩人은 順天郡黃田面朴勝奉의 舍音으로 外地主의 指示도 업는 小作權을 ... (順天)

孤兒救濟振興運動

再昨年秋期 平壤에서는 無依可憐한 孤兒를 救濟키 爲하야 有志人士를 網羅하야 孤兒救濟會를 組織하고 平壤孤兒院을 設立하얏슨데 ... (平壤)

新興永明野球競技

全州私立新興學校主催로 同校生徒團과 公州私立永明學校生徒團間에 去十六日 同校運動場에서 野球試合을 行하엿는데 觀衆은 三千餘名에 達하야 盛況을 呈하얏스며 最後의 勝利는 新興校에 歸하얏다더라(全州)

葛山面學校期成

定州郡葛山面에는 從來敎育機關이 無하야 ... (定州)

浦項里女子講演會

利原郡南面浦項里女子夜學院 ... (利原)

咸興劇場新設計劃

咸興은 北鮮地方의 都市로 ... (咸興)

忠南金組聯合總會

去十八日에 忠南道會議室에서 忠南金融組合聯合會第五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 (公州)

春川捕蠅獎勵計劃

江原道春川警察署衛生課에서는 ... (春川)

利原에도 準備進捗

民立大學利原地方部設置에 對하야 ... (利原)

元山에 英艦入港

英國의 中國艦隊所屬巡洋艦 「다ー씽」號(千六百噸)는 十六日午後一時 元山港에 入港하야 防波堤外에 碇泊하얏는데 右艦은 五日前에 咸海衛에서 떠나 元山에 온것이며 數日을 지나 釜山으로 向할터이라는데 乘組員은 四百餘名이라더라(元山)

咸南水產議員投票

咸南水產會評議員選擧는 임의 報道한바와가치 去十五日에 咸興道廳 西村府屬三人의 立會下에 執行하얏는데 開票結果 投票總數三十八票라 ... (元山)

平南水產議員選擧

平南水產會議員選擧를 ... (平壤)

各地青年團體

松禾蹴球大會

松禾體育會主催 ... 第一回黃海道蹴球大會 ... (松禾)

河東蹴球及庭球會

河東青年會와 本報河東分局主催 ... (河東)

利原青年巡廻講演

咸南利原靑年聯合會에서는 ... (利原)

宗橋엡윗青年總會

京城宗橋엡윗靑年會에서는 ... (京城)

永川基督青年總會

永川基督靑年會에서는 ... (永川)

麗州春季大運動會

時日 五月二十七日
場所 麗州寧陵
會費金 壹圓
主催 麗州青年會
後援 東亞日報麗州支局

イマヅ洗粉

中性 石鹸

참化粧美에 覺醒한 歡喜

이 徹底한 化粧美를 與하는 白粉이여!

クラブ白粉

구라부

化粧하는法

金鶴石鹸

젊게보이는 낫과 皮膚美!

濟純植物性!

金鶴오리부石鹸

學生用 萬年筆提供

安全잉크止式
最新型安全잉크止式
最新安全線田式

金一圓六十錢
金二圓五十錢
金二圓九十錢